KOTRA\_2차미팅

배경 : 일본이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3대 품목(불화수소, EUV레지스트, 불화폴리이미드)에 대한 수출을 규제함, 이때 불화수소가 없으면 반도체를 수출할 수 없고 이때부터 공급망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음

문제 :

1. 요소수 문제 – 중국에서 요소수 관련 규제를 공지한 것은 작년 10월11일, 하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10월28일로 충분한 대처를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음
2. 인도네시아 팜유 문제
3. 자동차 부품 문제

와 같은 공급 규제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

접근 : 기존에는 사후 대처(언론 데이터, 해외 관세청)를 했으나 요소수 사건을 계기로 한계를 느끼고 선제 대응(빠른 파악 통한 대처)을 목표로 하고 있음

* 작년부터 300개(?) 품목 정해서 모니터링 시작(현대종합상사, 대림 – 해외 지사 +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정보 수집하고 있음)
* 자료 못 찾음

해결 : 해외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규제 정보에서 키워드 추출 – 언론과 다양한 곳에서(EU 규제 대응 사이트)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파악 –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 것

* 키워드 추출,

대상 : 1차(산업부, KOTRA), 2차(산업 전문가), 3차(기업)

결론 : 공급망 위기 파악 통한 대응시간 확보

포인트 :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soft한 규제도 공지를 할 것인가, 분석을 진행할 5개국을 선정할 때 수입 의존성이 높은 국가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